

## -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-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아산시 입장

2023. 5. 12.(금)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**홍성표** 의원의 5분 자유발언 “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집행 촉구”에 대한 아산시 입장입니다.

- 홍성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일방적인 교육비 삭감 통보는 시의원과의 회의를 무시한 처사이고, 어떠한 대안 및 방법도 없이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, 2023년 기 확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. 이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### 시 입장

- 아산시는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청 본연의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.
- 교육재정 상황이 나쁠 때는 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교육재정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을 다 쓰지도 못한 채 기금으로 1조 원 이상 적립해 오고 있는 등 교육재정이 풍부한 상황에서 굳이 시가 재정지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.
-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, 연초 집중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한 후 시정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게 된 것이며,
- 전액 시비 사업은 올해 지원을 유지하고, 교육청이 사업주체이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조정되는 것으로 교육주관기관인 교육청의 예산으로 진행하면서,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으로 23년도 본예산 조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.
- 이에 사업 성격과 역할에 맞는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화하여 본질적

성격의 사업은 교육청이 맡도록 하고, 보조적·특성화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수혜자인 아산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더 많은 교육 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조정된 사업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가 아닌 아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아산형 교육특화사업에 다시 사용할 계획이며, 교육사업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청소년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강화
- ②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4차산업 분야 교육과정 강화
- ③ 청소년의 신체적·정서적 성장 발달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
- ④ 인구 소멸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·돌봄 프로그램
- ⑤ 학교,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창출

○ 이러한 새로운 아산형 교육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더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※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교육청소년과	과 장	공판석(041-530-6260)
		학교지원팀장	정은정(041-530-6262)